

# 총천연색의 현실에서 떠올리는 흑백영화의 가난한 시절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임병석-헐리우드 키드(Hollywood Kid)-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나갈지 자못 흥미진진했다. 아니, 다만 영화 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았던 헐리우드 키드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 환상으로 탈출을 꿈꾸는 많은 인생 불능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또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궁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임병석은 이 책의 서술자인 윤명길과 함께 암울했던 시절 영화를 통해 상상의 세계와 현실을 넘나들며 만족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인 황야의 7인 중 한 명이다. 영화를 좋아했다기보다 영화 속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랑을 하고, 충절을 하고, 반항도 하고, 미지의 세계로 여행도 해서 황야의 7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 까까머리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영화에 미친' 임병석을 친구들은 '헐리우드 키드'라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임병석은 그에 걸맞게 모든 영화는 다 섭렵했고 현실의 모든 일들도 영화라는 허구의 세계와 연관지어 생각하기에 이른다. 사랑까지도…….

결국 그는 병역기피자가 되어 주민등록증도, 집도, 안정된 직장도 없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무책임한 두 주일'이라는 시나리오 한편을 남기고 사고로 이 현실의 세계를 떠난다.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무 것도 되지 못한 인간형이라고 서술자는 임병석을 정의하는데 과연 그를 현실이라는 안경을 쓰고 안정이니 성공이니 하는 말로 읊어대서 판단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한 영화감독인 서술자가 임병석이 건네준 시나리오를 현실적 성공을 점치며 좋아하다가 그 시나리오의 구절절절한 아름다운 내용이 거의 모두 헐리우드 키드가 목숨만큼 아꼈던 영화 속에서 이미 한번 자신을 울고 웃게 했던 내용이었음을 깨닫고 속았다고 괴로워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현실이라는 재미없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더 딱딱하게 바라보지만 임병석은 영화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국 인생살이에서 상처입은 쪽은 우리가 아니라 헐리우드의 세계를 꿈꾼 임병석이었다. 그는 꿈이라는 정신적인 음식을 먹고 마셨기에 꿈과 현실 사이를 배회하다 현실에는 그 초라한 발 뒤꿈치만 디뎠기 때문이었다.

'무책임한 두 주일'이라는 옛 영화 속에 주옥같은 언어들에 짜집기한 작품도 현실을 영

화로 보려 한 그가 작가들이 자신의 피로 글을 쓴다는 것처럼 보상받지 못할 현실의 실패를 영화를 다시 영화로 만들 그 작품으로써 맞바꾼 것이다. 그 작품 속 윤교수의 말처럼 '한 인간의 삶은 모든 다른 인간의 삶에 손길이 닿게 마련'이기에 서술자는 결국엔 그의 작품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미 떠난 헐리우드 키드와 함께 낭만, 정열, 무모함이 공존했던 그의 빛나는 시절이 사라짐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흑백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총천연색이지만 가난했던 시절에 흑백영화를 보던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영화를 보기 위해 수업도 마다하고 영화관 담을 몰래 뛰어넘던 그들의 객기 아닌 객기가 부럽다.

작가는 그 시절과 함께 헐리우드 키드는 죽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어딘가엔 헐리우드 키드와 같은 인물이 살아있을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능력하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산다는 건 너무 심심해. 인간과 인생에는 신비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영혼을 지닌.

## 조은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84-229호(27/6)

## 「박종화의 삶과 문학」

문학이론만이 표나게 강조되고 있는 요즘은 운병로 교수의 저서인 '박종화의 삶과 문학'은 평생을 민중문학의 주체성을 견지해온 박종화의 작가정신을 그의 일기와 더불어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맛을 풍기고 있다. 따라서 비록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책의 토대에 흐르는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데 커다란 생각의 거리를 던져줌을 느끼게 된다.

「박종화의 삶과 문학」은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공개된 월탄의 일기를 발굴하여 '민중문학의 주체성을 고수해 왔던 작가 정신의 본령'과 '근대적 문학인의 현실인식 및 문학세계'가 저자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서 생생하게 조명되는 특색있는 논저이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근대 문학을 개화시킨 1920년대 근대 지식인들—이광수, 염상섭, 나도향 등—의 인간적 고뇌와 정신적 훈향이 다채롭게 전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까지 감

춰져 있던 문단사의 이면이 밝혀지는 차원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대표적으로 이광수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하여 변질하게 되는 연유—를 자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월탄의 일기 저변에도 도히 흐르고 있는 한 문학인의 민족적 아픔에 대한 고뇌와 사회적 모순에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순수한 열정은 현재 우리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와 닮은 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월탄의 역사소설은 초기부터 이루어지다가 30년대 전반기의 침묵과 모색의 시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역사소설로 나아가는 문학적 고뇌와 동기가 1936년의 위기상황에서 친구들의 강권에 있었음을 일기에서 밝히고 있다.

일평생을 역사연구와 정착을 병행해 가고 있는 월탄의 문학 행적은 최근 소설계에서 유행하는 '대하 역사소설의 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또한 이 책은 여지껏 결손되어 왔던 문학사의 일부분을 객관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그건 나와 같은 문학의 문외한도 다가가 수 있는 당대 문학당층의 정신적인 지향과 월탄 개인의 문학세계가 배태된 시대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다운 역사소설에 목말랐던 나에게 저자가 책머리에 지적하고 있는 월탄의 '수분(守分) 철학'은 이 책에 생생히 살아서 주어진 역사적 사명에 몸과 마음을 에누리없이 던지는 옹골찬 선비정신을 들려주고 있다.

## 박은희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5번지

## 「마음으로 보는 지혜」

진정한 휴식이란 어떻게 찾는 것일까? 그런 질문에 대해 한 권의 책을 만남으로써 대답을 대신할 수 있을 듯하다. 「마음으로 보는 지혜」라는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흔히들 말하는 우화집에 가까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 구미래 씨가 후기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우화집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많은 책이다. 부제를 '고서와 경전 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마음에 관한 99가지 이야기들'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이 책은 우리나라·일본·중국 등 동양문화권의 고서와 경전에서 모아진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각 이야기 끝에는 저자의 간단한 생각들이 함께 실려 있어 해설의 구실을 한다. 불과 몇 행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대부분은 2~3페이지씩을 차지하는 간단한 듯한 이야기들이다. 거기에 곁들여진 그림들이 한결 이 책의 품위를 더해주는 듯하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실린 이야기는 아주 짧다. 한편 한편의 에피소드와도 같은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선(禪)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야기들 속에 잠시 바쁜 일상을 벗어나 머리를 비우게 하는 어떤 힘이 들어있는 것 같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한때 유행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막연히 그 의미를 느낄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해는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이야기 끝에 첨가된 저자의 해설을 통해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이야기들의 나열에 그쳤던 기존의 우화집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김지희

서울 종로구 내수동 179번지

## 「천국의 열쇠」

A.J. 크로닌의 쓴 「천국의 열쇠」를 읽고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종교의 개념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었다.

어느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은 나로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제삼자의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주인공인 프랜시스 신부가 자신의 종교 안에서 충실하면서도 타종교에 전혀 이질감을 갖지 않음은 그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게 하였다. 거기엔 어릴적 외조부인 다니엘 그레니에게서 받은 자유방임주의가 은연중 프랜시스 신부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것도 없진 않지만 큰 비중을 두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소꿉친구이며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밀리신부는 많은 신자를 모으고 대성당을 짓게 되

며, 고위성직자로 큰 성공을 거둔 반면, 프랜시스 신부는 많은 좌절과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단 몇 사람의 신자만을 인도하게 된다. 이를테면 아무리 지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할 불의와 쉽게 타협하지 않을 독실한 신자들만을 두었다고나 할까. 프랜시스 신부의 시종일관 거듭되는 실패와 장애를 보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할지 암담하며, 신은 큰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고통으로 시험해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세계에 집착해야 되는 진정한 종교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그의 활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동떨어진 마을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싸우면서도, 오로지 지옥이란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선의의 관용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나고 외친 막연한 희망,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 오만한 베로니카 수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성직자의 자세로 돌아와 주었음은 살아있는 성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만큼한 것이었다.

늙은 몸으로 감수해야 했던 육체의 고통까지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었던 프랜시스 신부가 되기 전 첫사랑이며 마지막 사랑이었던 노라의 연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류하여 노라의 손녀인 안드레아의 양육을 끝까지 맡은 것은 종교보다 더한 힘으로 받아들여졌다. 진정한 종교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들어내지 않고 다만 그 일에 만족하며 물질로서 신자를 사지 않아야 된다고 보았고 정말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존재할까 생각해 보았다.

### 임수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ATP 458동 201호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

누구에게나 우울한 색조로건 눈부신 은빛 발광체로건 지난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시절 가운데서도 유년에 대한 추억은 세상의 고통과는 아랑곳없던 시절의 것이어서 청년기의 번덕스런 색조와는 달리 사금파리조각처럼 온통 환하게 빛나는 것이기 마련이다. 흐릿하면서도 때로 사진처럼 또렷히 떠오르는 영상.

성장소설을 읽는 것은 평범한 독자들의 기억으로는 온전히 복원될 수 없는 그 시절에의 향수를 작가들이 허구 혹은 실재를 복제해 놓은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 현실의 남루함을 그 무구했던 시절의 꿈과 순수로 씻어내고 싶어서.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는 성장소설 읽기의 어떤 목적에도 모두 적절히 어울린다. 적지않은 수의 성장소설이 마치 위인전기의 '위인예정설'처럼 작가 스스로가 남다른 감수성과 비범함을 어린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려고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치함이라든가 풋풋한 감동을 주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에 비해보자면 이 책은 작가의 너무나 유려한 입담이 글읽기에 가속도를 더해 쓴살 같이 읽혀버리는 게 오히려 흠이라 싶을 만큼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수채화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와닿는다.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에서 이미 본적 있는 묘사가 적지 않아 신간소설이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는데, 그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어디까지가 작가의 속내(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쓸데없는 궁금중에 시달렸던 것을 이 책을 통해 허구와 사실이 가려진 정답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작가에게 더욱 진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를 좋아하는 독자만이 가지는 행복일 것이다.

50년대 전쟁으로 무참히 깨져버린 그동안의 가족의 단란함, 그렇게 되기까지 앞치고 덮친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로서 주인공이 언젠가는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끝맺는 이 소설의 말미는 작가가 왜 소설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1930년대 개성지방의 풍속과 훼손되지 않은 산천의 모습,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일제하 민중들의 인심 등에 대한 묘사는 마치 당시의 흑백 보도사진을 대했을 때처럼 젊은 세대 독자들에게는 언제 들어도 늘 새롭다.

### 이향일

서울 송파구 거여1동 46번지 현대3차APT 303동

## 헵시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일을  
도모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유익을  
드리는 동반자입니다

## 헵시바한글다듬기 서비스 개시

●사이시옷 (화제거리 → 화젯거리, 황토길 → 황툯길 등) ●빈소리 (홀죽 → 홀쭉, 혼구멍 → 혼꾸멍, 혈덕 → 혈떡 등) ●빈도수가 높은 외래어 표기 (앰블런스 → 앰블런스, 코메디 → 코미디, 코오피 → 커피 등) ●부사형 어미 '이', '히', 구분 (조용이 → 조용히, 충분히 → 충분히, 깨끗이 → 깨끗이, 곰곰히 → 곰곰이 등) ●변칙 ('시옷' 변칙: 짓어 → 저어, '히울' 변칙: 허영네 → 허여네, '우' 변칙: 푸어 → 퍼, '으' 변칙: 담그어 → 담가라, '러' 변칙: 이르어 → 이르러, '르' 변칙: 가르어 → 갈라, '비움' 변칙: 역겨어 → 역겨워 등) ●모음조화 ●두음법칙 ●보조어간 '이' '히' 용법 (높히다 → 높이다, 덮히다 → 덮이다 등) ●어간 끝 'ㄹ'의 생략 (빌읍시다 → 빌시다, 살을수록 → 살수록 등) ●'렬', '열', '률', '율' 용법 (분렬 → 분열, 합격율 → 합격률 등) ●어미 뒤 조사 '요' (하리오 마는 → 하리요마는 등) ●지시대명사의 띄어쓰기 (이것, 그후, 그쪽, 그중 등) ●기타

### 헵시바가 개발한 프로그램 및 아이템들

- 헵시바한글다듬기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컨버전 프로그램 ●색인의 무제한화 ●외국어 교정
- 전집류의 용어 통일 작업 ●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한 동시작업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전화 265-92401 · 팩스 263-1992

**여기** 전산사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